

성용광전, 중국 태양광 시장 “활개”

한국계로 9월15일 코스닥 상장 ... 수직계열화 구축에 수출도 호조

태양전지를 실리콘 잉곳에서 모듈까지 일관생산하는 한국계 홍콩기업 성용광전투자유한공사(룽에너지)가 9월1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다.

성용광전투자유한공사는 홍콩에 설립된 신·재생 에너지기업으로 태양전지 일관 생산체계 갖춘 중국의 성용광전과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이다.

성용광전은 2006년 태양전지용 실리콘 잉곳, 웨이퍼 생산을 시작한 이후 셀과 모듈생산까지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최종제품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9년에는 매출액 916억원, 당기순이익은 148억원을 달성했고 2010년 상반기에는 매출액 733억원 당기순이익 67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200%, 180% 증가했으며 하반기에는 매출 1070억원, 순이익이 1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모가는 희망범위(2700-3300원)의 하단인 2800원에 결정됐으며 9월 6-7일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서는 대표주관사인 대우증권은 1.26대1, 유진투자증권에서는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규성 성용광전 대표이사는 “1989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양말 공장을 운영해 번 돈을 모두 투자해 설비투자과 기술개발에 온 힘을 다한 결과, 성용광전은 설립한지 3년만에 중국 6위, 세계 20위로 도약했다”며 “2011년까지 세계 10위에 올라서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일관 생산체계를 갖춘 태양광기업은 모두 7곳으로 성용광전은 모듈 판매량 기준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100MW 수준인 태양전지 생산능력을 2011년 말까지 200MW 규모로 확충할 예정이다.

성용광전은 세계 태양전지의 평균 변환효율(15.4%)보다 높은 17%의 변환효율을 가진 태양전지 기술력을 인정받아 독일에 생산량의 72%를 수출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17%), 이태리(5%), 홍콩(4%) 등에 공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15>